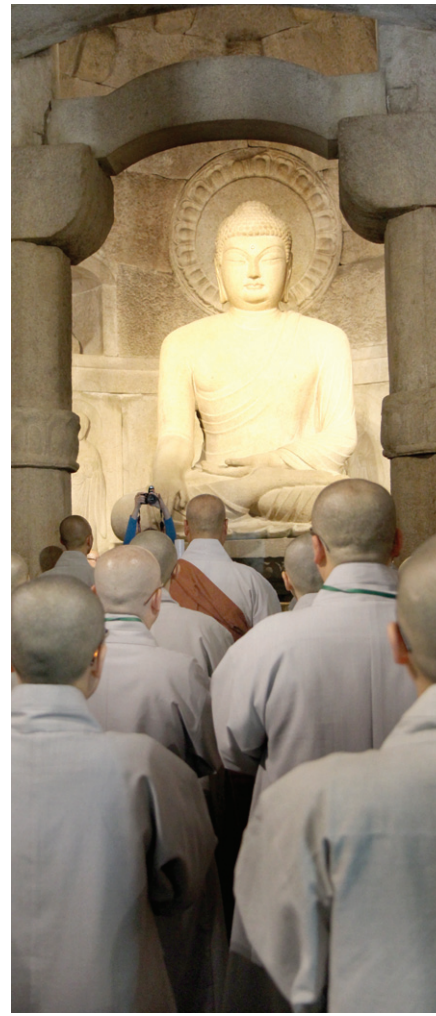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5일부터 7일 경주 일원에서 2012 하반기 승려연수교육으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진행했다. 종단 연수교육 사상 첫 답사 교육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진은 경주 남산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차 교육은 10월 10일~12일까지 진행됐다.



답사 연수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이 석굴암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산벼랑 위에 조각된 마애관음보살입상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들. 이처럼 답사는 교육과 예불이 함께 진행됐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아찔한 기암에 새겨진 마애불은 지금도 경주를 굽어보며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 스님들 ‘古都 경주 천년 불교’ 걸어서 만나다

## 르포 - 조계종 교육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현장

신라 천년 고도(古都) 경주에 자리한 남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은 말 그대로 불국도다. 산 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천년 신라의 시간을 간직한 채 산재해 있다.

이 같은 ‘불국도’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을 77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이 발로 만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2012 하반기 승려연수로 실시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통해서다. 종단 승려교육 사상 처음 시행된 이번 답사 연수 프로그램은 1차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라문화원에서 맡았다.

10월 5일에는 입제식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흥선 스님과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이 강의가 진행됐으며, 안압지와 첨성대를 체험해 보는 행사를 가졌다. 연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6일에 진행된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서남산에서 출발한 77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초입의 삼릉(三陵)을 거쳐 남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났다. 머리가

없는 부처님이지만,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의 선이 뚜렷하고 선명하다.

바로 위에는 마애관음보살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의 풍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호상과 수인만은 뚜렷하다. 아슬아슬한 산벼랑위에 조각된 마애 관음보살은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시간을 넘어 지금도 중생을 굽어보고 있다.

마애관음보살입상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마애선각육존불이 있다. 마치 병풍을 쳐 놓은 듯한 바위에 아미타삼존상과 석가삼존상을 각각 새겼다. 마애불이지만 선각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조각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형상이다. 또한 육존불의 위로 오르면 부처님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한 물팔과 천정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보인다. 표면이 불규칙한 바위 위에 펼쳐진 자유로운 필치의 조각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선현들의 열정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스님들은 모든 불상을 만날 때 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예를 표했다. 또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필기하거나 카메라로 녹화하며 답사에 대한 열의를 보였

다. 사이 사이 불상에 대한 진지한 견해와 질문들도 오갔다.

산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가파라진다. 사실 경주 남산은 해발이 500m가 안되는 낮은 산이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기암들로 이뤄진 험로(險路)는 산을 오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 승려 연수교육 첫 답사 시행 남산 동서종주하며 성보 만나 다양한 강의, 체험도 진행돼 스님들 만족도 높아 발전 '기대'

한 무리의 바위 군을 헤치고 나오니 단아하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보인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훼손이 심했다. 불두는 떨어져 다시 붙였고, 광배는 군데군데 깨어져 보수한 흔적이 많았다. 그래도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터에 조화로운 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양대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을 오르는

길 사이에는 남산에서 두 번째 큰 마애불인 상선암 마애대좌불이 있으나 지금은 생태 보존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스님들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오봉 정상 아래로는 용장사지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길도 만만치 않은 험로다. 가장 먼저 삼층석탑이 눈에 보인다. 그 아래로 용장사지와 삼문대좌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전각과 불상보다 탑이 위에 있는 구조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 남아 있는 유구들의 독특한 조형 방식이 눈길을 끈다.

삼층석탑의 경우 하층 기단이 없고, 바로 상층기단으로 이어진다. 용장사 삼층석탑은 200m가 되는 기암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채 5m가 되지 않는 탑으로 하늘에 다다른 듯한 조상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남산의 동쪽 봉우리 고구봉은 능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동남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적 중 하나가 칠불암이다. 칠불암은 ‘일곱 분의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은 마애삼존불과 그 앞 사방불로 구성돼 있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고부조로 만들어진 칠불암 마애삼존불은 현재 아쉽게도 보수 중이어서 면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답사에 참가한

스님들은 일곱 분의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불적답사는 염불사지와 남산동 쌍탑을 끝으로 경주 남산을 동서로 종주하며 마무리됐다. 그 길이로만 10여 km에 달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없이 답사에 임했다. 새로운 형식의 교육 도입은 참가 스님들에게 높은 만족도로 다가왔다. 특히 전문 강사의 설명 들으며, 경주 남산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데 스님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오늘을 계기로 신도들과 경주 남산을 둘러보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본혜 스님은 “사실 경주 남산에 오를 일이 없었고, 이번에 기회가 닿아 참가하게 됐다”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며, 성보들을 답사했다. 무엇보다 경주 남산의 왕경계 불교미술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답사 내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의식을 집전해 온 신홍수 도감 선호 스님은 “경주 남산의 유구들을 보며 집전을 하니 가슴이

몽글몽글 왔다”며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공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거창 신원사 총무 돈오 스님과 김재 귀신사 총무 명지 스님도 “‘불국도’ 경주 남산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였다”며 “이 같은 교육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원은 이런 스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답사 코스 개발하고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여태까지 모든 승려 연수가 실내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기획된 것이 답사 교육”이라며 “스님들이 이 같은 불교 유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삶과 수행에 투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를 위해 운영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도 “이번 연수를 통해 경주 남산이 스님과 신도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답사 교육은 석굴암, 불국사 참배와 회향식을 가진 후 마무리 됐으며, 2차 교육은 10월 10~12일까지 진행됐다.

경주=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 울(宗) 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창립 18주년을 축하합니다

### ■ 종 정

총무원장: 해인 사시실장: 대산

역경원장: 해산법종

울 원 장: 해일 중앙선원장: 도일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 ■ 원 로 원: 법종, 성민, 해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해원

총 회 의 장: 백공  
의 산 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해만  
교무부장: 해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정대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안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건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회장: 해월, 해산, 월산  
총무: 정혜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흥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혜,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해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총무원장: 보덕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총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총무원장: 해인  
인천총무원장: 해원  
강원총무원장: 광덕  
충남총무원장: 혜덕

충북총무원장: 학산  
경남총무원장: 백산 지건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지명총무원장: 덕산  
경남왕릉총무원장: 지원  
경북총무원장: 덕운  
부산중부총무원장: 정오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전남총무원장: 도명

전북총무원장: 법성  
제주총무원장: 청호  
울산총무원장: 해공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중국정도총무원장: 중산청목

###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해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사회국장: 범산  
유현석  
이사: 해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전지무에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 총 립

서울총립 해인사  
삼화총립 백화사  
부산총립 흥국사  
경남총립 백전사  
강원총립 조주선관  
충북총립 정릉사

###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총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 삼화불교대학원

학 장: 법종 부학장: 일봉  
교 수: 법종, 백공, 해운, 월공,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근  
조 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행,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신, 원광, 묘현,  
지성

#### ■ 삼화불교대대학원

원 장: 해인  
교 수: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해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목

#### ■ 중국남경총의대대학원

총 장: 오연화 부 학 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해인 중국총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 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원: www.njutcm.co.kr

남경총의대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